

칼빈의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조명한 목회사역 연구

남 희 수 (세계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초록

본 연구는 칼빈의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조명한 목회사역 연구를 통해서 당시의 사회복지가 사회적 약자들의 삶속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사회복지가 주는 의미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기독교사회복지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섬김(diakonia)의 정신 속에 교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둘째, 개교회주의 인식 변화이다. 개인주의는 교회의 양적성장 또는 성장 우선주의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개교회주의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며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라'(Let Church Be Church)는 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셋째, 교회의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칼빈은 집사 직무의 중요한 기능을 언급하면서 구호품을 나누어 주는 자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조직으로 나누어 활동하게 하였다. 근본적으로 기독교사회복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신학적 정립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즉 분명한 신학적 근거와 신실한 신앙에 근거해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개인의 영혼 구원만이 아닌 통전적(統全的)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다.

주제어: 기독교사회복지, 섬김, 집사, 컨시스토리

I. 서론

1. 연구목적과 문제제기

한국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여 성도 수 일천만 명을 넘어섰다. 더욱이 뒤늦게 들어온 복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대형교회가 국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는 188개 교단의 1천만이 넘는 교인으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또 일면으로는 이와 같은 양적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은데, 교회의 양적성장에 관심을 둔 나머지 상대적으로 기독교사회복지에 관심이 소홀해졌다는 것이다. 현대의 다원화된 구조 속에서 교회는 세상을 향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홀로 인하여 주께서 명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 물량주의, 교파주의 등에 많은 열정을 기울였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영혼구원에 관한 선포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의 메시지는 구속의 은총과 인간을 구원하는 영혼구원만이 아니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개인의 영혼구원만이 아닌 통진적(統全的)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로하시며 그들과 함께하셨다. 더 나아가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며 빈곤한 자와 소외된 자들의 상실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하셨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나그네, 빈곤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마땅한 도리이다.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는 바지의 두 가랑이와 새의 두 날개와 같다(한화룡 역, 1996)고 한다. 사회의 끊임

없는 발전과 이로 인한 역기능은 인간 소외와 상처로 이어지며, 사회는 갈수록 병들어가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사회복지목회에 관한 학문적 정립이 절실하게 요구된다(한국 기독교사회복지총람,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칼빈의 사회복지를 연구하고 논함으로써 칼빈의 관점에서 조명한 목회사역에 기초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6세기 유럽의 사회적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로마 가톨릭의 도덕적·정치적 타락에 기인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하던 사람들의 신분주의적 사고는 순식간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더욱이 인간 자신의 본질적인 독립된 가치와 발전 가능성에 강조한 인문주의적 인간관의 조명 아래 사회는 더 이상 교회의 영향권 아래 있기를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급속적인 유입에 따라 경제적인 삶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은 이전에 교회중심의 사고 아래서 가능했던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소속감마저 상실하고 있었다(Estep, 1986). 존 칼빈(John Calvin)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한층 더 강화하고 완성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사회적 약자의 가치와 존엄성을 회복시키며 기독교 사회복지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 칼빈은 예수께서 몸소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보여주신 행적에 따라 교회가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는 그의 목회사역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병환(2006)은 선교 2세기를 맞이하면서 교회의 양적성장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6세기 당시 제네바 시를 변화시켰던 칼빈의 실천적 목회사역은 지금 한국 교회의 좋은 대안이 될 만하므로 연구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칼빈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교리적이며 이론적인 신학 사상과 관련된 연구들에 그치고 있는 반면, 기독교사회복지 사상에 관련한 연

구들은 소수일 뿐만 아니라 칼빈의 기독교사회복지와 관련한 목회 부분에 있어서도 연구가 미미하다. 종교개혁가이며 신학자인 칼빈은 또한 목회자로서 평생을 목회사역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칼빈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그의 신학사상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기에 그를 신학자이면서 성경주석가·설교자·목회자·교회행정가로만 한정하여 이해한다면 그가 추구한 기독교사회복지와 관련한 복지사상과 목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본 연구는 그동안 미약했던 칼빈의 기독교사회복지 사상과 복지목회를 통한 개혁가로서의 삶을 탐구하여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첫째, 칼빈의 “사회복지 활동을 통한 목회사역”이 과연 당시 시대적 상황에 적절하게 전개되었는가? 둘째, 그의 사회복지와 관련한 목회사역이 제네바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칼빈과 관련과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신학적 교리들에 관한 연구로서, 이를테면 이중 예정(Double Predestination), 전적 타락(Total Depravity),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성만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임재, 칭의 교리 등의 신학사상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칼빈의 기독교사회복지 사상과 제네바 시(市) 목회사역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에 있어 1차 자료(Primary Sources)는 기독교 강요, 주석, 칼빈의 설교, 빌헬름 니젤(Wilhelm Niesel)과 페터 바르트(peter Barth)가 편집한 “칼빈 저작 선집”(Calvin Opera Selecta) 등을 중심으로 참고하며, 2차 자료들(The Secondary Sources)은 관련 선행연구들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칼빈의 기독교사회복지 형성 배경과 관련하여 시대적 배경

과 신학적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칼빈의 기독교사회복지와 관련한 목회사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II. 칼빈의 기독교사회복지 형성 배경

1. 시대적 배경

기독교사회복지에 관한 칼빈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삶의 자리인 정치·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중세기 동안의 제네바는 이론적으로는 그 도시의 감독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보이의 대공에 의한 통치를 받는 감독 도시였다. 대공 샤를 3세(Duke Charles III)는 1504년에 통치를 시작했으며, 처음부터 그의 요구들은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과중한 것들이었다. 제네바 시는 대공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선포했다. 샤를 대공은 1530년에 군대를 동원했지만 베른과 프리부르그도 동시에 군대를 동원하는 바람에 제네바 시를 공격하지 못했다(Fred Graham, 김영배 역, 1993), 이러한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칼빈이 제네바에 체류(1536~1538)하게 되는데 당시의 제네바 시는 가톨릭의 억압에서 벗어나 공화제적인 형태의 정치제도가 시작되면서 오락, 도박, 술취함, 간음, 신성모독 등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만연하였다.

제네바 시의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칼빈에게 사회적·종교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갖게 하였다. 칼빈은 제네바에 만연해 있던 이와 같은 악들에 대한 폐해를 막기 위해 「신앙고백과 규율집」 그리고 「요리문답」을 준비하였다. 이것들은 1536년 11월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모든 시민에게 성베드로 교회에서 신앙고백문에 서약할 것을 명하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가톨릭의 횡포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려는 목적에서 종교개혁을 환영하였지만 엄격한 개혁에 거부반응을 보였다(신복윤, 1993), 칼빈의 제네바 활동시기인 1540년대 중반부터 로마 가톨릭의 박해를 피하여 많은 망명자들이 제네바로 몰려들어옴에 따라 굶주리고 병든 사람이 속출하였고, 갑작스런 피난 빈민의 대량유입으로 도시의 기능은 거의 마비될 지경이었다. 이와 같은 절대 빈곤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급증하자 사회적으로 피난민들을 위한 구호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칼빈은 이러한 사회적 역경에 대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동시에 사회적 대량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나 정부의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개입 방안을 촉구하였다(김기원, 2009). 당시 유럽을 비롯해 세계는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국가나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무역과 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농민들 사이에 불안이 고조되고 있었다.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지주, 법률가, 상인 그리고 전문인들로 구성된 부르주아 계급을 낳았다. 이 그룹은 새로운 정치적 힘을 가졌고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개신교 사상에 눈을 떴다. 지성적으로는 르네상스운동이 문화 창출을 위한 노력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학문세계는 지성적 반성과 불안의 시기였다. 더욱이 인쇄술의 발견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칼빈이 성공적으로 교회개혁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법과 정치에 대한 그의 능력과도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칼빈의 사상이 당대에 제네바의 법률 제정과 정치제도에 폭넓은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근대사회의 정치사상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칼빈은 동 시대의 로마교와 재세례파의 정치사상을 비판하고 다른 종교개혁자들에 비해서 보다 발전적인 정치제도를 확립하려 했다. 칼빈은 국가와 관련하여 중세적 전통을 따르는 다른 개혁자들과는 다른 독특한 입장을 견지하

였다. 그는 시민 정부를 인간의 악행을 통제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상적인 사회의 필수 요소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신앙에 기초하여 국가의 권위에 대한 최대한의 기본적인 순종을 말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저항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특히 악한 통치자에 대한 행동적 저항은 무력저항 운동이 아니라 고·하급 관리(magistratus)를 통하여 법적 직무 수행과 법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합법적 저항운동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2009). 칼빈의 관심은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대 상황 속에서 로마 가톨릭의 개혁과 갱신을 촉구하였으며, 제네바 시민들의 빈곤과 안경을 위하여 대변력을 감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네바에서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법치적 신정정치’를 실현시켰다.

2. 신학적 배경

칼빈은 오직 은혜에 의한 칭의의 교리를 강조하였으나 동시에 경건한 삶의 훈련을 강조하는 성화의 교리도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신학적 배경 속에서 칼빈은 인문주의 교양 교육의 영향을 따라 수사학, 자연과학, 미술, 음악 등에 의한 동시대의 지식과 문화의 영역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지식과 문화는 종교적 신앙과 소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신정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신학적 사상 속에서 칼빈의 사회복지에 대한 사상적 배경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Pietas, Piety)이 있었는데, 이 경건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호소하는 공동체적 영성운동이었다(Van Geest, 정승훈, 재인용, 1996). 특히 칼빈은 1538년 제네바 시의회로부터 종교적 마찰로 인해 제네바를 떠나 스트라스부르크(Strasbourg)에서 3년간 체류하면서 종교개혁가 부처(M.

Bucer)와의 인연을 통해 사회복지 사상에 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유에 있어서는 부처는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빈민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조직화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로 스트라스부르그에 걸인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칼빈은 그곳에서 프랑스 난민 약 500명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였는데 이 시기에 사회복지에 큰 영향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다시 제네바로 돌아와 부처로부터 사회복지 사상을 목회를 통하여 전개한 것으로 본다.

이에 관련한 근거는 그의 「기독교 강요」 2판(1539년)에 소개되고 있는데,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훈련을 받았던 요한 스투름의 영향과 부처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그의 복지사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knowledge of God)’을 언급하고 있다. 그의 신학 사상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선 하나님 지식과 인간 지식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인간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단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이 적합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인지 또한 그를 앎으로써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이 있는가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John Calvin, 제1권).

칼빈은 하나님의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경의 안경을 가지고 재조명된 일반계시와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고 참되게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알게 됨으로 경건한 삶을 얻게 된다고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존경이 결합된 것이 경건이다(박영호, 2004).

칼빈이 언급한 ‘참된 경건’과 ‘올바른 제자의 도’에 관한 의미는 칼빈 당시의 후기 중세 시대에서는 ‘경건’과 ‘구제’가 거의 같은 의미로 통용되었다

(Prichard, 1994). 예수의 산상수훈(마5:1-12)의 말씀에 근거하여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문안하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잠잘 곳이 없는 자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고, 죽은 자를 장사지내 주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확증하는 것으로 보았다.

칼빈은 중세교회가 교리적 잘못으로 인해 명목상으로 운영하고 있던 기독교 사회봉사 활동의 문제점들을 개혁주의 신학으로 바르게 지적했다. 그는 개혁신학을 통해 참된 경건의 의미를 부각하면서, 참된 경건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교회 안과 밖의 구제와 사회봉사가 교회 직분자들의 고유한 직임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손병덕, 2005). 이처럼 칼빈은 개혁교회 안에 직책에 있어 구제와 봉사가 교회 직분자들의 매우 중요한 항존적 사명임을 강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사회복지란 기독교의 근본정신인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열악한 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물질적·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양적·질적으로 향상하고, 성서적 정의를 실천하며,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기독교인들의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자 가치체계를 말한다(김기원, 2004). 이와 같이 기독교사회복지는 성경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3. 칼빈의 기독교사회복지와 관련한 목회사역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파리 북방(Picardy) 지방 노용(Noyon)에서 감독의 비서 집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성직이 아니었으나 그의 영향으로 성직이 되게 하려 하여 성직목으로 교육을 받은 칼빈은 14세 되던 해에 파리 대학에 들어가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였다. 그러나 그의 부친이 감독과 의사 충돌한 후, 칼빈에게 법률을 공부하도록 했기 때문에 오를레앙(Oriens)대학

과 부르그(Bourges)대학에서 공부하여 법학사가 되었다. 1531년 부친이 사망하자 비로소 자기 의사로 인문주의 프랑스대학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였다. 칼빈은 중세 가톨릭의 권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교리체계와 신앙과 생활체제에 대하여 성경계시에 의존하며, 경건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케 하는 신앙과 생활의 체계를 신학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개혁신학의 세계관이 유물론적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을 극복할 수가 있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계속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고 인생으로 하여금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감사,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 자연에 대한 온전한 관리를 주장하는 것이 칼빈의 사회복지 사상이다. 모든 시대와 장소 그리고 모든 도시와 마찬가지로 제네바 시에도 유산자와 무산자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그 조그만 도시로 밀려들어 온 피난민들로 인하여 1540년대 중반 무렵부터 비정상적이 되었다. 악화일로로 치닫는 나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극빈자들을 돌보아 주는 공공 자선기관이 설립되었다(Sources du droit, 1533). 칼빈은 종교개혁 제2세대에 속하고 있지만 그의 삶속에서의 가르침은 종교개혁을 더욱더 강화하고 완성함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칼빈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개혁을 이끌었기에 그의 영향력은 서구사회에 인간의 사상과 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그는 봉사(Diakone)에 관해서도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1535년 파렐(Farel)의 영향으로 제네바의 빈민과 병자들을 위한 새로운 구호 규정이 만들어졌을 때 칼빈은 병원 등의 시설에 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칼빈은 개혁교회 안에 네 가지 직책을 제정했는데, 목사, 교사, 장로, 집사(Diakone)였다. 집사의 시무기간은 말씀을 가르치는 다른 직책과 달리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했다. 유그노(Hugenotten)들에게 있어서는 집사들이 교회의 지도관리까지 참여했다. 특히 독일에 있는 개혁교회의 구조가 그렇게 되었

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말씀의 증거에서부터 새롭게 인식되는 과제들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다. 여기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 대한 사랑의 과제를 어떻게 새롭게 수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도외시할 수 없었다(이삼열, 1999, 칼빈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었기에 개혁 교회의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고, 점점 커지는 봉사의 요구에 대해 사회사업을 감당할 힘과 조직의 필요성과 명분을 가지게 되었다. 칼빈은 제네바를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기 위하여 많은 개혁을 단행하였다. 제네바 전체가 오직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제네바 시 전체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에 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말하길 “만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밖의 다른 모든 개혁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약2:17)고 한 것처럼 칼빈은 진정한 구원의 믿음은 선행을 만들어 낸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행은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열매인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칼빈은 이를 위해 몸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 그는 제네바에 있는 동안에 물질로 궁핍하였는데 본인 스스로가 사례비 증액을 거부하며 그나마 있는 것은 구제와 헌금으로 다 바칠 정도였다(남희수, 2007).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칼빈이 추구한 사회복지의 실천은 무엇인지, 즉 그의 사회복지 활동을 통한 목회사역은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의 사회적 약자를 향한 목회사역이 제네바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1) 구빈원을 통한 사역의 실제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자선사업(charity work)을 성경말씀에 기초한 종교적 동기에서 타인을 원조하는 복지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당시의 주요한 자선

사업의 형태는 신도 상호 간의 상호부조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신자를 방문하고 석방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며 고아와 기아를 보호하는 형태였다. 이러한 활동형태는 당시의 기독교회가 초기라서 비교적 적었고 동시에 신앙열이 대단히 높았다. 한편 외부로부터의 박해로 가일층 단결심이 촉진되어 결속이 강하여졌다. 중세의 자선기관은 사원·숙박소·구빈원·hospital·수도원·십자군·기사단·공익전당포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사원과 숙박소 그리고 구빈원은 그 대표적 기관이다. 중세 후기의 구제물품이 분배되는 방식은 점차적으로 다양해지고 개별화되었다. 귀족들과 부유한 개인 혹은 단체들은 자신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 때때로 이러한 재단은 사실상 구빈원(alms-houses)이 되었고(비록 그 기관들이 실질적 의료기능은 없었으나) ‘병원’이라고 불리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자선의 형태는 지역에서 방랑하는 걸인들에게 구제물품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Elsie Anne Mckee, 류태선·정병준 역, 2000). 따라서 당시의 구빈원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자선과 구호를 전개하였다.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사회복지의 개혁을 만인제사장직의 기능, 즉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의 기능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국가적 복지의 개혁을 승인했다. 칼빈주의 개혁파는 복지에 대한 평신도 지도력을 인정하는 점에서 명백하게 개신교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평신도의 직제가 우선적으로는 교회적인 것이고, 부차적으로는 또한 적절하게도 시민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칼빈은 구빈원을 통해 광범위한 사회사업을 전개하였는데, 먼저 칼빈이 1541년 작성한 ‘제네바 교회법령’(In the Geneva Church Ordinances)은 신정정치의 출발이었다. 교회와 정치를 완전히 분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둘이 상호관계를 가지며 보완하는 것이다. 이 엄격한 교회규칙이 선포되자 제네바 시에는 도박집이 자치를 감추게 되었고 댄스가 금지되었다. 음행을 범하는 자는

감옥 형벌과 벌금형을 받았고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사형까지 내렸다. 이 제네바 교회헌법은 구빈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 구빈원은 일할 수 없는 병자들과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상태로 잘 유지되어야 한다. 또 과부나 고아, 기타 빈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완전히 독립된 공간과 여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한편 제네바 교회헌법은 ‘제네바 구빈원이 병원 내에 있는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의사들에 대한 급료는 특별히 제네바 시가 담당할 것이다’라는 사실도 말하고 있다. 제네바 시의회는 당시 수도원으로 사용되었던 비어있는 수도원을 매입하여 시립병원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일반 환자와 함께 장애인을 대상으로 케어하였다. 하지만 시립병원을 통하여 유입되는 피난민들의 의료와 복지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당시 제네바 시에는 박해를 피해 프랑스, 이탈리아, 합스부르크 등에서 피신해 온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다. 이들은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인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매우 가난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시립병원은 제네바 시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체제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칼빈은 사회적 약자인 타국인을 구빈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복지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제네바 시민뿐만 아니라, 제네바로 박해를 피해 피난 온 난민들에 대해 우호적이었으며, 그들을 위한 교육, 경제활동, 일반 생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 가족들을 위한 일련의 사회복지목회를 행하였다(박차상 외, 2001). 칼빈은 이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련의 기구와 조직들을 세우게 되었으며, 사람들의 사회봉사에 관하여, 정부는 공익(the common food)의 보호를 위해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칼빈이 구빈원은 창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1537년 제네바로 온 이후로 로마교회의 주교들과 사제들이 버리고 간 구빈원 제도를 팔목하게 발전시

켰다. 그는 국가 복지기관과의 연관성을 중요시하였다. 구빈원이 국가에 의해 운영되고 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교회가 목회사역과 봉사차원으로 교회에 속한 집사(deacons)를 통한 인적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빈원은 교회의 복지시설이다. 구빈원은 병자들이 간호와 돌봄을 받거나, 노인, 과부, 고아, 나그네가 필요한 것을 제공받는 곳이었다. 구빈원은 현대의 병원과 달리 그 기능에 있어서 훨씬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의 구빈원은 빈곤에 처해 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거, 의료진료,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일도 하였다. 한편 제네바의 구빈원은 종교개혁이 몰고 온 시대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네바의 구빈원은 종교개혁기 이전에도 소규모 구빈원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시작되자 시의회는 모든 병원들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어 1535년에는 교회의 재산과 부동산의 수입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새로운 포괄적인 병원 즉, 종합구빈원을 설립하였다. 그 때부터 구빈원은 병자들 노인, 과부들 그리고 고아들을 위한 구제 중심기관이 되었다. 구빈원의 중요한 직책들은 집사들이 맡았고 시에서 제공되는 재원을 통해 운영되었다.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메시지

칼빈의 사상 가운데 교회는 국가에 대하여 네 가지 직무를 가졌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즉 교회는 국가를 격려해야 하는 부자와 권력 있는 자들이 가난한 사람 내지는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며 지켜주도록 국가를 권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그것이 교회를 모든 경제적 부정에 단호히 대항하게 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위한 요구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기 때문이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성경 강해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일을 감당하였으며, 파렐과 함께 베른(Berb)이나 보드(Vaud) 그리고 로잔(Lausanne)에까지 종교개혁을 확립하도록 하였다. 한편 칼빈은 복음을 통한

도전과 복음의 능력이 인간의 마음뿐 아니라, 이 세상 사회생활의 모든 국면, 곧 가정문제, 교육, 경제 그리고 정치를 새롭게 하고, 지도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칼빈의 메시지는 생동감과 열정 그리고 명백성이 있는 반면에 회중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힘이 있었다(Parker, 김지찬 역 1990). 시편 83:3의 “가진 것 없어 서러움 달하는 이들과 기델 데 하나 없는 고아들을 감싸주어라. 빈민과 없는 이들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어라”를 칼빈은 다음과 같이 주해하고 있다. “정부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으로 명성을 날리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를 지키는 것이 통치자들의 의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칼빈은 그것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자들은 그들 서로 간에 불화가 생길 때를 제외하고는 통치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드물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복지가 이 세상에서는 주로 통치자들에게 위탁되는 것이 분명하다.

칼빈에게 있어서 부와 빈곤이 성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말이 아니다. 즉 부와 빈곤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총의 수로들이며, 인간에게 신앙을 확증하는 수단들이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가 이 지상에 빈곤의 실재를 허용하시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한 사람은 부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한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 하나님은 인간의 선의를 심사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덧없는 재물을 불공평하게 분배해 주신다. 그는 인간을 심사하고 계신다. ……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끼지 않는다면 이것은 선한 증거다. 만일 가난한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으며 그의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부정행위나 다른 악을 행하고

자 하지 아니하고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을 끈기 있게 행한다면 이것도 역시 선하고 유용한 사람이 될 것이다.” 칼빈이 경제 분야에서 남긴 가장 참신한 주장은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인간들에게 공평한 재물 분배를 마련해 놓고 계시다는 것이었다. 강단을 통해 그는 제네바의 선량한 시민들과 가난한 피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의 지체처럼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존중할 때 각자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나는 나를 필요로 하며 그리고 만일 내가 궁지에 빠진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이웃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바로 이 일을 행해야만 한다.’ 요컨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결합시키셨고 한 몸으로 우리를 연합시키셨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존중에서 우리 나오는 형제의 사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의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그 자신에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모든 것을 봉사하게 한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가 각자의 재력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궁핍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장연의 균형을 권고하시므로 풍요로운 자도 있을 수 없으며 부족한 자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이해관계의 사회와 경제의 윤리를 뜻하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어떤 사회 부분의 곤궁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인간적 결속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사실상 악이다. 이것이 칼빈에게 사회 혁명가라는 오명을 씌울 것인지의 여부는 그 용어의 정의에 달려 있다. 그러나 분명히 칼빈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및 이방인을 위한 히브리적 관심과 모든 압제받은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관심을 모두 가지고 성경을 읽었던 그리스도인이다. 칼빈은 당시 기본적인 곡식의 양이 부족했던 때에 독점과 투기를 일삼은 자들에게 경고하였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당시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 곧 “은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고 신 한 켄레로 궁핍한 자들을 사는 사람들”(암2:6)에 대해 칼빈은 그의 주해에서 기근의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밭살스러운 자들에게 복종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킨 부자들의 탐욕에 관해 말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 기근으로 고통당할 때 가난과 압박적인 궁핍의 영향이 어떤지를 안다. 그럴 때 인간은 그들 자신을 구하려고 하기보다는 형편 없는 가격으로 백 번이라도 그들의 생명을 팔려고 할 것이다.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식량이 필요하겠는가? 부자들은 밀의 가격이 겨우 올랐다는 것을 보았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의 소유로 삼을 때다. 그리고 다른 상황이 이 부정을 증대시킨다. 그들은 밀 부스러기를 팔아먹었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종으로 전락시켰을 때 그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지 않았다. 그들은 통상 그래왔듯이 밀에다 오물과 찌꺼기를 뒤섞었다. 이처럼 칼빈은 말씀을 통하여 당시의 밀 매점자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칼빈은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가난한 노동자들의 품삯이 지불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가공할 행위’라고 비난하며,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류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질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제적 오용에 대한 징벌은 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므로 가난한 자들에게 행한 악행이 반드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유의해야만 한다. 이처럼 칼빈은 제네바 시의 전반적인 사회생활에 있어 특히 빈곤상업, 노동, 직업, 착취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과업임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타국인들이 제네바에 와서 가난한 살림과 자녀들의 무거운 짐까지 지고 있을 때에 시 당국은 골머리 아프며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교회의 집사들과 구빈원은 이들을 돕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편 칼빈은 제네바 시의 부요한 자들에게 사랑의 법을 촉

구하였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약자보호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에 누구도 이 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칼빈의 사회, 경제사상에서 어떤 중심 주제가 있다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사용되기 위해 하나님께로 왔다는 점일 것이다.

3) 제네바 컨시스토리(The Geneva Consistory)

칼빈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연구가인 로버트 킹던(Robert M. Kingdon)은 컨시스토리 회의록(The Registers of the Geneva Consistory)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1541년에 제정된 제네바교회법에 따라 1541년 말에 세워진 심리 법정과 강제적인 상담기관 및 교육 그리고 권징기관이라고 말하고 있다(Robert, 1992), 칼빈은 “정부가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는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의 교회는 유지해 나갈 수 없다”고 한다.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칼빈에 주장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칼빈은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필요로 했으며, 그 구체적인 사회적인 규제기구로서 경계와 규제하는 방법으로 활용된 것이 ‘제네바 컨시스토리’이다. 칼빈은 1536년에서 1538년까지 체류하면서 제네바 시의 개혁을 단행하였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망명생활을 한 후에 제네바 시로 다시 돌아와 제네바시의 성도의 훈련은 교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여러분들의 목사로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의 무질서를 고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저를 망명생활에서 다시 부르신 것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 범죄와 방탕함을 제거하십시오. …… (중략)…… 제 생각에 복음의 제일 큰 적은 로마의 교황이나, 이단이나, 미혹케 하는 자들이나 독재자가 아니고 나쁜 기독교인들입니다. …… (중략)…… 선행을 겸비하지 않은 죽은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악한

생활이 진리를 가장하고 행동이 말을 부끄럽게 한다면 진리 자체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저로 하여금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고장을 버리고 떠나 새로운 망명지에서 제 고통의 쓰라림을 삭히게 하시든가 교회 안에 법이 엄격하게 지켜지도록 해 주십시오. 순수한 훈련 또는 권징(discipline)이 재건되게 하소서(Theodore Beza, 1999).” 칼빈은 교회의 성도 훈련 혹은 권징에 대한 의지가 매우 분명하였다. 이러한 의지는 1541년 교회법(Ordonnances Ecclesiastiques)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칼빈이 제네바 컨시스토리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 된다. 칼빈은 ‘교회법령’에서 권위를 가지고 교회권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이 제네바에 세워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컨시스토리는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행한 자들을 소환하고, 훈계하며, 출교하는 일을 하였다. 이와 같이 칼빈은 건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훈련 혹은 권징과 아울러 시 당국자가 재가된 법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사회적 권징을 병행했던 것이다. 컨시스토리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교회에 행사하는 일종의 교회법원이었다. 사회복지의 제 분야 중에 컨시스토리 기능을 통해 교정복지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의미하는 바가 있다.

교정복지(Correctional Work)는 범죄인의 재활과 범죄예방에 개입하여 사회복지실천 활동을 전개하는 사회복지 전문직이다. 비록 칼빈이 범죄인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컨시스토리를 통해 제네바 시의 여러 고질적인 문제들을 정부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일종의 현대의 ‘교정복지’ 형태의 사회사업을 실천해 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칼빈의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현대의 ‘사회복지의 접근 방법’ 중 사회구조론적인 관점에서 본 ‘정책적 접근방법’(김안호 외, 2002)이라고 할 수 있다. 몬터(Monter)의 연구에 따르면 제네바 시의 범죄율은 칼빈과 그의 동료 목사들(주로 프랑스계 이민자들)의 등장 이후로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컨시스토리의 기능이 사회복지 중 제대로 된 교정복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며, 이는 칼빈의 목회사역 중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다. 즉 컨시스토리의 기능을 통해서 제네바시가 범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경건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의 지표를 제시하는 효과를 얻게 된 것이다.

컨시스토리는 성화된 성도들의 모범적인 신앙훈련과 권징을 위한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이러한 활동의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은 1555년 이후이다. 1555년은 칼빈의 제네바 목회사역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던 해이다. 당시 베르뜰리에(Berthlier) 사건이 종결되면서 컨시스토리의 출교와 해벌(회복)권이 재확인되고, 선거에서 칼빈을 따르던 사람들이 정치적 대세를 장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해 칼빈주의를 확장하는 제도로서 일반 심방제도가 채택되어 컨시스토리의 활동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1556년 이전에 제네바시에 심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특정 집단, 즉 병자, 혹은 교도소 심방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일반 심방이 시행되면서 개신교로 개종한 평신도들의 삶을 좀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는 감독의 기능이 강화되었다(Hughes, 1966). 당시 제네바는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대였으며 프랑스 난민과 함께 혼돈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속에서 칼빈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무질서한 제네바 시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컨시스토리를 통한 권징(勸懲)으로 범죄인의 소환, 훈계, 출교, 해벌과 함께 상담, 중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 빈곤 퇴치를 위한 사치금지법

일반적으로 빈곤의 개념에 있어 전통적인 의미로는 개인 및 가족의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는데, 현대적 의미의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하여 과거에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뜻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과거의 개념을 벗어나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교육, 건강 등

의 사회적 조건 또는 자원의 결핍상태까지 폭넓게 보기도 한다. 칼빈은 제네바 시의 개혁을 통하여 삶의 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여 사회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부자의 기부가 부를 나누는 방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구별이 없어질 정도로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양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구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공동체 내에서의 부와 가난의 극심한 차이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생각하였다. 칼빈은 눅 12:33의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현재의 소득은 물론 재산까지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쉽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우리의 소득이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우리가 가진 재산이라도 내어놓는 것을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당시 제네바는 부자들을 위한 화려한 의복, 호화로운 생활, 가면무도회와 같은 사치스러운 모습들이 있었다. 제네바 시는 이러한 사치를 규제하기 위한 ‘사치금지법’이 있었다. 1558년에 법이 제정되었는데 칼빈은 사치금지법을 만드는 일에도 참여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였다. 칼빈은 이 규제조항을 통해 피난민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사치금지법에는 의복과 음식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지나치게 화려하다고 생각되는 머리모양과 몸치장을 금하고 있으며, 카드와 주사위를 금지하였는데 이는 게임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노름의 피해를 막아보자는 것이다. 노름은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금지하였다. 사치금지법 즉, 소비억제법은 여성들의 사치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옷 입는 문제까지 규정하는 등 일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 법은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 병자, 고아, 그리고 계속 밀

러오는 피난민들로 인한 사회·경제적 혼란과 무질서를 막고 과도한 사용을 제어함으로써 재화의 유통과 순환을 이루는 효과도 있었다(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2009). 당시 종교법원의 대표인 니콜라스 데 갈라르(Nicholas des Gallars)가 사치금지법의 의뢰서를 시의회에 제출했을 때 말한 그의 증언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법인을 대표하여 니콜라스 데 갈라르는 우리 가운데에서 사치와 무절제가 감소하지 않고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심한 창피거리가 되고 있으며, 그러한 무절제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분개한 다는 진정했다”. 이러한 ‘사치금지법’이 제정된 이면에는 빈곤한 생활과 감당하기 힘든 생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치스러운 행위들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며,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괴리감을 최소화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의 건강한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사회통합’을 꾀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처럼 칼빈 당시 1558년에 제네바의 시의회에서 ‘사치금지법’을 제정하여 과소비를 규제하였다. 즉 ‘사치금지법’은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시의회는 이 법을 만들 때 그 취지를 “많은 악을 산출하고 탐욕스러운 교만을 양육하고 빈곤과 높은 생활비를 초래하고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원인인 사치를 근절하려 하는데, 이 원리는 하나님을 크게 화나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치금지법’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의상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면서 연회에 대한 문제는 연회가 세 코스 이상 또는 매 코스마다 네 접시 이상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치금지법은 부요한 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시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었다. 아쉬운 점은 ‘사치금지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분명한 취지와 명분을 가지고 시작하였기에 그다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음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5) 집사직제

많은 사람들은 집사직무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을 단순히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는 영구적인 교회의 직제, 또는 인간의 육체적 고난에 대한 한 몸된 교회의 교역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그런데 완전히 발전된 집사직무의 교리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집사직무는 장로와 목사, 교사, 곧 세 가지 장로의 직무 다음에 오는 네 번째 교회의 직제로 이해된다. 한 개인이 평생 동안 활동하는 집사로 있을 수는 없지만, 직무로서 집사는 꼭 필요하고 영구적인 것이다.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또한 개별적으로 가장 고통을 겪는 그리스도의 자매와 형제들에게 세상적인 필요를 봉사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집사직무는 가난한 사람과 병자들을 돌보기 위해 설립된 교회의 직제이다. 칼빈은 집사직무가 두 가지 주요한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이해했다. 즉 재정의 모금과 관리, 그리고 실질적이고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보살핌이었다. 칼빈은 이러한 과제를 봉사인력의 두 종류 관리자(관리자)와 보살피는 자, 혹은 남자와 여자의 일로 구분했다. 남자 집사들은 여성보다 우위에 있었고 안수를 받았다. 나이드은 과부가 여성집사로 그들은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었고,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칼빈은 1535년에 쓰여지고 1536년 바젤(Basel)에서 출판된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칼빈은 자신의 성경연구에 근거하여 집사직무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를 비판했다. 그는 직사직무를 자선을 위한 교회의 직제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집사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집사의 기원과 안수와 직무를 기록했다(행6:3).…… 이것은 빈민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세운 집사의 직무이다. 이러한 일로부터 집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들은 소위 봉사자(ministers)로 불리게 되었는데…… 바울 또한 그들을 집사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당시의 집사는 사회

적 약자를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전심하기 위해 세운 것이 직사의 직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1539년에 내용이 추가되어 출판된 「기독교 강요」는 이 표현에 아무 것도 첨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1543년에 개정되고 추가된 내용은 전체적인 가르침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즉 집사직무를 영구적인 직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직사직무 자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빈민을 구제하는 일은 집사들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공활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롬12:8)고 두 종류의 집사가 언급되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의 공적인 직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 따라서 두 종류의 다른 집사의 등급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만일 내 판단이 틀리지 않는다면, 바울은 첫 조항에서 그는 구제품을 나누어 주는 집사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조항은 빈민과 병자를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과부들은 두 번째 종류에 속한다(딤후5:9-10). 여성들은 빈민을 돌보는 것 외에 다른 공적인 직무를 할 수가 없었다.” 칼빈은 이러한 가르침을 성경으로부터 가져왔으며, 「기독교 강요」에서 다른 집사직무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집사직무는 본래 예배직무가 아니지만, 초대 교회가 교역자로서 집사의 지위를 표시하기 위해 예배할 때에 일정한 역할을 부여했던 관행은 적절했다. 빈민과 병자를 돌보는 교회의 직제는 영구적 직무로 지정되었다. 칼빈은 그의 시편 주석에서 “신실하고 온유한 독자들에게”라는 인사말로 시작했는데 그는 그 인사 속에서 그가 도착했을 때의 제네바에 대한 견해와 그 곳 교회의 서글픈 현상을 함축하고 있었다.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문제들 가운데에는 “제네바에는 가난과 굶주림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부정한 이득을 탐하는 허욕과 탐욕에 의한 야망으로 눈이 뒤집힌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들어 있었다. 칼빈이 1541년에 다시 돌아온 뒤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 대한 관심을 새로 창안된 집사의 직무를

통하여 교회와 국가의 공동 관심사가 되었다. 이와 같이 교회가 개혁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교회 직제의 마땅한 도리이다. 특히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임명된 집사들은 빈궁에 처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다.

집사직의 사역은 제네바 시의 구빈원들에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종교 개혁 이전에 제네바 시에는 여행자들을 위한 구빈원, 병자들을 위한 구빈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빈원 등 몇 개의 작은 구빈원들이 있었다. 주교와 함께 가생트 클레르(Sainte Claire)의 고대 수도원에 새로운 종합 구빈원을 설립하였다. 이처럼 집사직의 봉사는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집사직제는 구호품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기 위한 교회의 직제였다.

III. 결론

지금까지 신학자이자 교회 정치가이고 또 16세기의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 가운데 한사람이었으며, 특히 제네바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개혁을 일으킨 사회복지가인 칼빈을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목회사역을 조명하였다. 칼빈은 사회복지의 교회의 위임된 사업이라고 제시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를 전개하였다. 즉 빈민들을 위한 사회복지를 적극 추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칼빈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사회복지를 제네바 목회사역에서 어떻게 전개하였으며, 그의 사회복지와 관련한 목회사역이 제네바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칼빈

의 목회사역에서의 사회복지가 오늘의 교회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칼빈의 기독교사회복지 형성 배경과 관련하여 시대적 배경과 신학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시대적 배경에 있어서 당시의 삶의 자리인 정치·경제적 상황은 당시의 제네바 시는 가톨릭의 억압에서 벗어나 공화제적인 형태의 정치제도가 시작되면서 오락, 도박, 술취함, 간음, 신성모독 등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만연하였다. 칼빈은 제네바에 만연해 있던 이와 같은 악들에 대한 폐해를 막기 위해 「신앙고백과 규율집」 그리고 「요리문답」을 준비하였다. 칼빈의 제네바 활동시기인 1540년대 중반부터 로마 가톨릭의 박해를 피하여 많은 망명자들이 제네바로 몰려들어옴에 따라 굶주리고 병든 사람이 속출하였고, 갑작스런 피난 빈민의 대량유입으로 도시의 기능은 거의 마비될 지경이었다.

다음으로 신학적 배경에 있어서 칼빈은 오직 은혜에 의한 칭의의 교리를 강조하였으나 동시에 경건한 삶의 훈련을 강조하는 성화의 교리도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신학적 사상 속에서 칼빈의 사회복지에 대한 사상적 배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Pietas, Piety)이었는데, 이 경건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호소하는 공동체적 영성운동이었다. 칼빈이 언급한 ‘참된 경건’과 ‘올바른 제자의 도’에 관한 의미는 칼빈 당시의 후기 중세 시대에서는 ‘경건’과 ‘구제’가 거의 같은 의미로 통용되었다. 또한 칼빈의 기독교사회복지와 관련한 목회사역의 실제들을 연구하면서 구빈원을 통한 사역의 실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메시지, 제네바 컨시스토리(The Geneva Consistory), 빈곤 퇴치를 위한 사치금지법, 집사직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구빈원을 통한 사역에 있어서는 당시의 구빈원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자선과 구호를 전개하였다.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사회복지의 개혁을 만인제사장직의 기능, 즉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의 기능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국가적 복지의 개혁을 승인했다. 칼빈주의 개혁과는 복지에 대한 평신

도 지도력을 인정하는 점에서 명백하게 개신교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평신도의 직제가 우선적으로는 교회적인 것이고, 부차적으로는 또한 적절하게도 시민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칼빈은 구빈원을 통해 광범위한 사회사업을 전개하였는데, 먼저 칼빈이 1541년 작성한 ‘제네바 교회 법령(In the Geneva Church Ordinances)’은 신정정치의 출발이었다. 구빈원이 국가에 의해 운영되고 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교회가 목회사역과 봉사차원으로 교회에 속한 집사(deacons)을 통한 인적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메시지에 있어서 칼빈은 복음을 통한 도전과 복음의 능력이 인간의 마음뿐 아니라, 이 세상 사회생활의 모든 극면, 곧 가정문제, 교육, 경제 그리고 정치를 새롭게 하고, 지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칼빈의 메시지는 생동감과 열정 그리고 명백성이 있는 반면에 회중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힘이 있었다.

제네바 컨시스토리(The Geneva Consistory)는 칼빈에 주장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칼빈은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필요로 했으며, 그 구체적인 사회적인 규제기구로서 경계와 규제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칼빈은 교회의 성도 훈련 혹은 권징에 대한 의지가 매우 분명하였다. 1541년 교회법(Ordonnaces Ecclesiatiqes)에서도 이러한 의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칼빈이 제네바 컨시스토리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 된다. 칼빈은 ‘교회법령’에서 권위를 가지고 교회권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이 제네바에 세워져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컨시스토리는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행한 자들을 소환하고, 훈계하며, 출교하는 일을 하였다.

빈곤 퇴치를 위한 사치금지법은 당시 제네바는 부자들을 위한 화려한 의복, 호화로운 생활, 가면무도회와 같은 사치스러운 모습들이 만연하였는데, 제네바 시는 이러한 사치를 규제하기 위한 ‘사치금지법’을 제정했다. 칼빈은 사

치금지법을 만드는 일에도 참여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였는데, 그는 이 규제조항을 통해 피난민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칼빈은 집사직무가 두 가지의 주요한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이해했다. 즉 재정의 모금과 관리, 그리고 실질적이고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보살핌이었다. 칼빈은 이러한 과제를 봉사인력의 두 종류 관리자와 보살피는 자, 혹은 남자와 여자의 일로 구분했다. 집사직의 봉사는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며, 집사직제는 구호품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기 위한 교회의 직제였다.

이와 같이 칼빈의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그가 실천한 목회사역을 정리해 볼 때, 칼빈은 당시의 삶의 자리에서 제네바 시민들뿐 아니라 제네바로 온 피난민들과 빈민들의 삶에 동참하였다. 그는 가난한 자의 벗이 되고자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였다. 그는 빈민들을 위하여 구빈원을 운영하였으며 기독교사회복지를 말씀에 기초하여 전개하였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목회와 사회에 개입하여 종교개혁을 촉구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칼빈이 제기하는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 그가 말하는 참된 교회의 모형은 “형제들의 일치와 사랑으로 연합을 견지하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교리와 그리스도의 한 영에 의해 함께 묶인 자들이다.” 칼빈은 참된 교회의 개혁을 희망한다. 그는 사회복지의 주체가 교회가 되기 위해 외쳤으며, 사실에 있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직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칼빈의 목회사역의 한 부분인 기독교사회복지가 주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사회복지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섬김(diakonia)의 정신 속에 교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주께서 몸소 행하셨으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명하셨기 때문이다. 디아코니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께서 행하신 사랑의 행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다. 둘째, 개교회주의 인식 변화이다. 교회가 기독교사회복지(Christian Social Welfare)에 관하여 소극적인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지나친 개인주의(individualism)에 집착하였기 때문이다. 교회의 지나친 개인주의 및 물량주의는 교인들의 세속화를 불러 올 수 있다. 개인주의는 교회의 양적 성장 또는 성장 우선주의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개교회주의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며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라’(Let Church Be Church)는 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셋째, 교회의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칼빈은 집사직무의 중요한 기능을 언급하면서 구호품을 나누어 주는 자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조직으로 나누어 활동하게 하였다. 이러한 칼빈의 직제와 오늘날의 교회의 직제는 많은 괴리감이 존재하고 있다. 즉 교회 성도의 봉사의 참여는 매우 소극적이며, 교회의 예산도 미미하고, 교회의 행사 일정에 따른 기관 방문 정도이다. 따라서 교회의 전담기구 또는 전담인력을 제도화하는 조직적이며 구체적인 실천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넷째, 교역자와 교인은 구제와 사회봉사에 대한 신학적 사명감을 확고히 갖고 있으며 신학을 현실과 분리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신앙을 실천해 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명감과 동기는 개인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신학적·성서적 훈련과정과 성숙과정을 통해 갖게 되지만 신앙과 철학을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노력, 비용과 인내를 통해 실제로 실천해 나간다는 것은 목회자의 성실성과 신앙의 진실성, 바른 신앙의 토대 없이는 실천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기독교사회복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신학적 정립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즉 분명한 신학적 근거와 신실한 신앙에 근거해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개인의 영혼 구원만이 아닌 통전적(統全的)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시며 그들과 함께하셨다. 이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다.

of Calvin (Grand Rapids: Eerdmans).

John Calvin, *Corpus Reformatorum*, II, 281; Herminjard 7, 249; English Translation of Calvin's Letters I, 260.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Prichard, R,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in Protestant Reformation: who cared?". *Encounter* 55(4): 1994.

Robert Kingdon, 1992. *Adultery and Divorce in Calvin's Geneva*(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4; "Calvin and the Family: the Work of Consistory in Geneva" in *Calvin's Work in Geneva*, ed., Richard C. Gamble (New York: Garland Publishing.

Abstract

A Study of Pastoral Ministry from the Perspective of Calvin's Social Welfare

Nam, Hee-Soo (Professor of World Cyber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on the socially vulnerable population and the significance of Christian social welfare by exploring the pastoral ministry from the perspective of Calvin's social welfare.

Firstly, the Christian social welfare must play a central role in churches according to Jesus' preaching on service (diakonia).

Secondly, there is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church individualism. Individualism can be expressed in the form of the church's quantitative growth and its drive for growth. In consequence, they tend to neglect providing a service to socially vulnerable people. That is why a church's individualism must be constantly reformed and churches must respond to the voice that says "Let Church Be Church".

Thirdly, churches must bring changes to their systems. Calvin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a deacon and divides those who provide socially vulnerable people with aid from those who take care of th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theological foundation for the Christian social welfare and promote awareness of a church's mission in order to understand it properly. In other words, the Christian social welfare must be implemented based on a clear theological basis and sincere faith. The declaration of God's kingdom by Jesus means not only individual salvation but also healing those who are sick and serving those who are vulnerable. It holds important lessons for Christians today.

Key words: Christian Social Welfare, diakonia, deacons, Consistory

투고일: 2013. 06. 18 / 심사완료일: 2013. 07. 29 / 게재확정일: 2013. 08. 05